

광주시, 생활안전 실천 범시민 합동 캠페인

지역 39개 기관·단체, 3대 사망사고 예방·생활안전 실천 활동 기관별 활동 벗어나 광주전역 동시다발 통합 안전캠페인 진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지역 39개 기관·단체와 함께 4일 오전 출근길 광주 전역에서 '3대 사망사고(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실천 민관협력 범시민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매월 4일 운영되는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추진한 것으로, 주요 사망사고 원인을 줄이고 시민의 생활 속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총 39개 기관·단체에서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어린이 등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6곳과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송정역, 전남대학교, 봉선시장 등 주요 지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산업재해 예방 ▲생활안전 수칙 실천 등을 주제로 현수막, 피켓 홍보, 홍보물품 배부 등을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같은 날, 같은 시간, 광주 전역에서 함께하는 통합형 안전 캠페인으로 진행돼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끌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추진한 협업 모델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 스스로 생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서구, 기업-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7개 기업 참여해 1대1 면접·설명회 등 진행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4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미니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대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우수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실질적인 채용·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농업회사법인 감동·(주) 마블건축·(주)사내건설·(주)은유디자인·(유)해주토건·디에이치아이원·일약약품 등 7개 기업과 청년·중장년 등 구직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1:1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포함해 이력서 클리닉·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구는 기업 2차 면접과 사후 매칭 등을 통해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단순한 취업 설명을 넘어 실제 기업들과 직접 연결되는 기회가 있어 훨씬 실질적이게 됐다"며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근석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광주대학교와 협력해 구직자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박람회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우수 기업과 구직자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용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오는 8일 동명동 카페거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부설주차장 일대에서 도심형 로컬문화축제 '제5회 동명커피산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취향을 찾는 감각여행(Taste Voyag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커피를 매개로 로컬 브랜드,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도시형 복합문화행사다. 광주광역시·조선이공대학교·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동

'취향을 찾는 감각여행'... 8일 동명커피산책 팡파르 동명동 카페거리 일대, 공연·토크콘서트·인문학 강연 등 다채

명공동체상생협의회·광주경제진흥원·동명동 카페거리·취어반플레이 등 다양한 협력 기관과 100여 개의 커피·디저트·베이커리 브랜드가 함께한다. 올해 커피산책은 '공향 여행' 콘셉트로 꾸며진다. 공항 입국 수속장부터 출국장까

지 이어지는 여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현장에서 방문객들은 '커피산책 여권'과 '탐승권'을 발급받아 여행하듯 동명동 카페를 여행하면 된다. 메인 행사장에서는 '동명 로컬 특화 상품쇼', '커피 MBTI 원두쇼', '동명커피산책 이야기 산책' 등 커피를 주제로 한 전시와 포토존을 조성, 걷고 마시며 즐기는 여행 같은 축제를 선사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명커피산책은 커피를 매개로 지역과 사람, 그리고 취향이 하나로 이어지는 축제"라면서 "이번 주말 광주의 가을 골목을 걸으며 감각으로 취향을 찾는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 추진한 평생학습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5 북평데이, 북평 플레이랜드' 행사를 오는 6일 솔로몬 로파크(북구 오문로 244)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북구에서 평생배우자'라는 슬로건 아래 평생학습 현장에서 활동 중인 기관, 강사, 활동가, 참여자, 주민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평생학습 참여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북평데이는 사업 성과물 전시 위

북구, '2025 북평데이, 북평 플레이랜드' 개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통합형 성과공유회

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평생학습 콘텐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배움과 놀이, 체험이 어우러진 통합형 성과공유회로 열릴 예정이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북구 평생학습 지역특화사업인 '꽃대어른학교'에서 운영했던 어른무용가 과정 일부를 현장 참여자들과 함께

배워보는 '몸 움직임 명상' 시간을 가진다. 개막식이 끝나면 행사장에서는 ▲북평학교 ▲북평고교 ▲북평학습관 ▲북평마켓 등 총 4개 ZONE 72개 팀이 참여하는 체험·전시·관매 부스가 동시에 운영된다. 참여자들에게는 현장에서 체험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북평머니'를 1인당 5장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올해 북구의 평생학습 교육 과정과 성과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존에서 운영되는 '북평부엌'과 '북평카페'에서는 팡파르마을에서 만든 '나뭇비빔밥'과 꽃대어른학교 바리스타반의 핸드드립 커피, 무릉학교의 토종 쌀 블렌딩 차 등 북구 평생학습 특유의 정이 담긴 메뉴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교유의 시간을 갖는다. /송현근 기자

광주 남구 시설공단 출범... '공공성·복리 증진 우선' 주차장·체육시설 등 효율성 향상 기대

광주 남구 시설공단(이사장 임형진)이 출범하면서 공공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공공의 향상을,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4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남구 시설공단이 지난 3일 남구종합청사 별관 2층에 등지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 평가원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까지 7개월 동안 진행한 '시설공단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모든 사업의 적정성과 함께 예산 절감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은 뒤 2년여 만에 첫 출발을 알린 것이다. 남구 시설공단은 공단 설립 목적인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방향을 널리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실현하는데 방침을 두고 관련 업무 추진에 나선다. 특히 출범 초부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관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시설공단의 조직 규모를 경영지원팀과 공공시설팀, 체육생활팀 3개 팀으로 편제했다. 관내 체육시설을 비롯해 문화와 교통, 환경 등 7개 분야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 업무를 진행하며, 팀별로 전문성을 발휘해 시설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시설물로는 관내 공영주차장과 다목적체육관, 봉선 테니스장, 현수막 게시대 등이 있으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온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관리 부분까지 도맡아 관리한다. 임형진 초대 이사장은 "공단 출범은 행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면서 "출범 초기에는 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민국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국회와의 협치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

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영혼 같이 놓으며 외교 총력...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 완화' 이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한중 정상회담 외교 성과도 소개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같이 놓으며 총력을 다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텀 빈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언급했다. 약 21분간 진행된 연설 동안 박수는 총 33차례 나왔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연설에서는 AI 관련 언급이 총 28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뉴시스

